

“간화선, 회통·겸수·합일이 특징” 충남대 김방룡 교수, 간화선 세미나서 정리

“한국 간화선은 △종파와 출·제가 불교를 초월해 수행해야 하는 회통의 논리 △선교(禪敎)·정혜(定慧)·지관(止觀) 겸수하는 수행차제 △화엄과 선의 궁극적 합일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9월 11일 열린 제10차 간화선세미나에서 발표자 김방룡 교수(오른쪽)와 사회자 서재영 박사.

충남대 김방룡 교수는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가 9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제10차 조계종 간화선 세미나에서 한국 간화선의 특징을 이같이 정리했다.

대중화·세계화가 조사선과 간화선의 종지종풍을 바로 세워 조계종의 ‘부정적 회통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진무 부산대 연구교수는 ‘<선문활요>와 한국 간화선 전통의 형성’을 통해 19세기 말 편집·유통된 ‘<선문활요>가 한국불교사상사적 전통에서 갖는 의미를 고찰했다. 김 연구교수는 “<선문활요>가 편집 이후 수차례에 걸쳐 현모 및 한글적의 대종화와 세계화의 지표로 삼을 만하다. 다만 간화선과 회통적 선종 사이의 간극이 있음은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방룡 교수는 “조계종의 간화선

조동섭 기자

지장신앙의 모든 것 총망라

東大 김진무 연구교수 ‘지장 I·II’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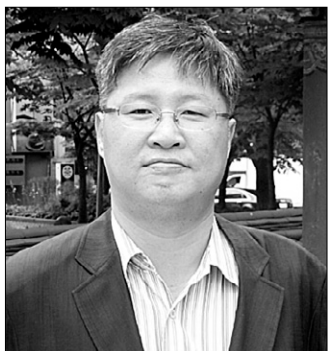
지옥에 떨어져 벌을 받게 된 증생을 모두 구제하기 전에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원한 지장보살. 한국을 비롯한 중국·일본 등 동북아 불교신앙의 한 축을 이룬 지장신앙에 관한 경전과 회화 경문 등을 총정리한 지장신앙의 백과사전이 출간됐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김진무 연구교수는 최근 <지장 I·II>(동국대출판부)를 펴냈다.

중국선종사 전공인 김 연구교수는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종교문화연구소장 장충 연구원의 원서 <지장신앙연구>를 번역하면서 다라니와 석굴사 관련 자료, 지장도상 등을 수정·보완해 냈다.

<지장신앙연구>는 장충 연구원이 중국 전역의 지장신앙과 관련한 사찰과 유적을 조사하고 방대한 작품과 문헌을 바탕으로 집필한 역작이다. 김진무 연구교수는 “장 연구원이 지장보살을 찾아 떠난 구도의 여정은 그의 학문적 열정의 소산”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지장 신앙은 신라 때 원광법사가 중국에서 귀국한 후 지장 삼



부경 중 하나인 <점찰선악업보경>을 근거로 ‘점찰보(占察寶)’를 설치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알려진 신라 왕자 김교각 스님도 빠질 수 없다. 김교각 스님은 당나라에서 출가해 안휘성 구화사에서 증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평가받았다.

책은 I·II 권으로 나뉘어 구성됐다.

I 권에서는 지장보살의 경전과 전적, 보권 등 관련 문헌 등 경전과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보권(寶卷)은 당나라 때 사찰에서 일반대중들을 위한 강설이 발전돼



지장신앙을 정리해 발간된 <지장 I·II>(오른쪽)와 번역자 김진무 연구교수.

나타난 것으로, 종교와 민간신앙을 내용으로 민중 사이에서 유행하던 문학형식이다. 보권은 7자 혹은 10자의 운문을 주로 사자마다 산문을 더한 형식으로 이뤄졌다.

II 권에서는 160여 장의 지장보살 조각과 회화도상과 김교각 스님을 통해 구화선 지장도량이 발생한 과정 등을 고찰했다.

김진무 연구교수는 “지장신앙은 현대 불교사회복지 개념과도 상통한다”며 “웰빙을 지나 웰다잉으로 대중적 관심이 전환되는 지금, 한국 불교가 지장신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02)2264-4705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교지혜 공익화할 콘텐츠 개발” 풍경소리 창립 10주년 심포지엄 열려

“불교적 관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종교·인종·계층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불교적 지혜를 공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9월 10일 풍경소리 10주년을 기념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박

지평 확대’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 등은 주제발표 ‘포교 공간으로서의 지하철 역사와 공간포교의 가능성’에서 “풍경소리 포스터는 무지의 공간을 지혜의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매체다. 풍경소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지하철 공간을 새로운 문화운동 공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지하철 공간에 절제와 배려의 공간문화를 형성하는 등 시민문화 운동을 전개하자”고 강조했다.

조동섭 · 이상연 기자

지하철 등 공공장소 포교에 앞장선 풍경소리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학술 심포지엄에서 불교적 지혜를 활용한 대중적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시키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중앙승가대 박수호·김응철 교수는 풍경소리가 9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간, 매체, 콘텐츠를 통한 포교의

‘서왕가’ 등 불교가사 계보 밝혀 김종진 東大 조교수 ‘불교가사...’ 책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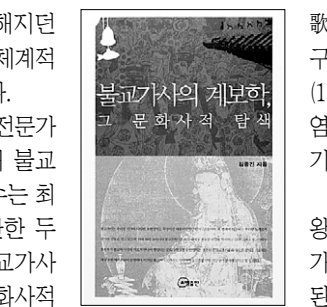
단편적으로 전해지던 불교가사에 대한 체계적 연구서가 발간됐다.

국내 불교가사 전문가인 김종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조교수는 최근 불교가사에 관한 두 번째 저서인 <불교가사의 계보학> (소명출판)을 펴냈다.

불교가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은 가사로, 스님들이 수행을 위해 지었다기 보다는 포교 방편으로 지어졌다. 4·4조 연속의 간단한 율격에 맞춰 어려운 불교진리를 쉽게 풀이해 암송하게 했다.

김 조교수는 책을 통해 단편적으로 언급됐던 불교가사의 작가를 복원하고 전승의 양상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했다. 또, 작품의 문학적 특징을 찾아 문화사적 의미를 살렸다.

최초의 불교가사는 고려 말 나옹 스님(1320~1376)의 ‘서왕가(西往



김종진 교수가 발간한 <불교가사의 계보학>.

歌)이다. ‘서왕가’는 구전되다가 속종 30년(1704)에 판각된 <보권업불문(普勸念佛文)>에 기록됐다.

김종진 조교수는 ‘서왕가’ ‘태평곡’ ‘회심가’ 등 17~18세기 전승된 불교가사를 비롯해 한암 스님의 ‘참선곡’ 등 불교가사에 대한 기존 문헌자료를 철저히 검증했다.

특히 책 중의 “회심가”의 컨텍스트와 작가론적 전망”에서는 기성패선 스님(1693~1764)의 글쓰기 방식을 통해서 선과 교학을 엮을신앙 속에 특성이 드러나 있던 사상적 경향을 확인했다.

김 조교수는 “불교가사는 우리말 시가의 다양한 표현영역을 확장시킨 대중지향적인 언어구조물”이라며 “조선후기 문화사적 흐름을 반영하는 자료인 불교가사는 조선후기 문화사의 한 영역을 기술하는데 중요한 텍스트”라고 강조했다. (02)585-7840

조동섭 기자

불교와 국가권력의 관계 조명 24일, 8·27범불교도대회 1주년 학술세미나

종교편향과 종교차별 종식을 위한 8·27 범불교도대회 1주년을 맞아 종교평화를 위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9월 24일 오전 9시 30분 ‘불교와 국가권력, 갈등과 상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3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행사에는 조준호 고려대 연구교수와 원영상·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각각 인도·일본·중국에서의 정치권력을 발표하고, 장석만 흥간문화연구소장이 정교분리의 성립과 전개, 이창익 한신대 연구교수가 ‘서구에서의 종교와 정치권력을 발표한다.

2부에는 이진구 호남신학대 초빙교수가 ‘서양종교 유입과

종교갈등’을, 김순석 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이 ‘일제의 종교정책과 불교’를, 이재현 경원대 미나리가 열린다.

3부에는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가 주제발표 ‘1960~1980년대 불교차별’을 발표하는 것을 비롯해 정웅기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과 김광식 부천대 초빙교수가 각각 ‘범불교대회의 배경과 성격’과 ‘종교간 대화운동’을 발표한다.

현종 스님은 “지난 1년 동안 사회 각계 각층에서는 종교편향, 종교평화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아직 도 종교편향 금지에 관한 사회적 실천이 미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간화선 학술대회 26일, 보조사상연구원

한국불교 대표 수행법인 간화선과 서구 심리학이 만난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9월 26일 오후 2시 동국대 초저당 세미나실(회관 411호)에서 ‘간화선의 원리와 심리학적 고찰’을 주제로 제87차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변희욱 서울대 철학과 외래교수가 ‘간화의 실재와 원리’,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 요가명상학과)이 ‘간화선 체험의 심리학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조계종 불학연구소 서재영 연구원과 전재강 안동대 외래강사, 김호국 동국대 조교수, 박재현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가 참석한다.

조동섭 기자

출가·재가 소통을 말하다 18일, 중앙승가대신문 창간 20주년 세미나

1989년 창간돼 젊은 학인스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중앙승가대신문(편집장 도정)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중앙승가대 신문은 9월 18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 출가와 재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주제로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는 경성 스님(회광대 주지)이 주제발표 ‘경전과 율장에 나타난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를 통해 경전과 율장의 출·재가자의 관계를 살피고 그 소통방법을 조망할 예정이다.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은 주제 발표 ‘오늘날 출가자와 재가자의 바람직한 소통방안’에서 기존의 출·

재가자간 소통 방법의 장단점 등을 살피고, 바람직한 소통이 종교적·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을 모색한다.

이날 행사의 토론자로는 본가 스님(중앙승가대), 이화중 미디어부대 대표기자, 임운택 계명대 교수, 정상덕 원불교 교무가 참석한다.

중앙승가대 신문은 20년간 초대 편집장 조계 스님(파주 보광사 주지·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비롯해 법인 스님(실상사 화엄학원) 등 30여 편집장을 배출하며, 율곡은 젊은 승가의 목소리를 내었다.

초대 편집장 조계 스님은 “소통”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갖고 중앙승가대 신문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마련한 행사”라며 “중앙승가대신문의 20년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삼봉) 스님은 어떤 분인가?

7대 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신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 벌여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콧물이 주루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콧물이 아니라 물린 보다 강한 흐르듯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분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감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물린의 2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는데 다이놀핀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게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자 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몇 차례 주입시켜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형상입니다. 부산 한의사 협회 회장님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가면서도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판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인데, 나의 의식이 생활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 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간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를 받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열렬전수(도력전수)입니다.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고자 스님, 처사님, 보살님, 종교지도자님, 한의사님,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 전수 장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수참가금 :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어서 2만원, 매신림 20만원 증정)
 - 전수 과정
 - 1차 : 천문을 열어드림 / · 2차 :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 치료법 실습강의 / · 4차 : 환신 받고 / · 5차 : 선단체조법 강의
 - 6차 : 사면권부여식 (병의된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 전수 일시
 - 2009년 9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 9월 24일 12시 종강
 - 2009년 9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 - 10월 1일 12시 종강
 - 2009년 10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 10월 8일 12시 종강
 - 2009년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 10월 15일 12시 종강
 - 저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서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 삼봉(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